

#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북 주요 현안 반영

###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선정 발표... 새만금 관련·미래먹거리 사업 등 '전북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가 국정과제 반영

전북도는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당산인의 전북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의 지역 현안 사업들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당산인이 약속한 전북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전북도 핵심사업의 국비 확보 등 신속한 추진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국정과제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에서 메가시티와 초광역권을 강조한 만큼,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 공항, 도로, 철도 및 산업단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등 새만금 관

련 주요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과제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및 거점 조성,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등이 반영되면서 농생명수도 전북의 명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과제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에 자율주행·수소연료 등의 과제가 반영됨에 따라, 전북의 주력 및 신산업분야가 활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새로운 발전을 위해 구상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미래상용차 산업벨트, 자율주행 시험평가 단지 구축,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및 그린수소 전주 산업생태계 조성,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대권도시대학교 및 전북스포트츠 종합훈련원 건립, ▲농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대선공약 발굴 추진단 운영을 통해 대선공약 발굴하고, 대선 이후에는 새정부 국정과제화 정책추진단을 주축으로 보고회를 여는

등 내실을 다져왔다.

더욱이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자, 부처 관계자에게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와 관련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부분 반영돼 새로운 전북의 5년이 기대된다"며 "지역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시설물 등 분야별 정밀안전점검 추진

###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 확정 위한 자문단 회의 개최... 분야별 안전관리자문단 24명 참석 정밀안전점검 확정된 30개소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점검 실시



전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은 건축물 및 교량 등 시설물 30개소에 대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도청에서 2022

년 상반기 전북도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은 교수·공사·민간업체 대표 등으로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9개 분야 24

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시,군에서 신청한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 30개소를 확정하고, 안전관리자문단별로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을 배분했다.

/유호상 기자

시,군에서 신청한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은 지난 1979년 준공된 부안변계화면사무소 등 건축물 15개소와 지난 1977년 준공된 익산 동자교 등 시설물 15개소로 대부분 외벽 균열 및 포장면 균열 등이 발생해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이다.

신청된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에 대해 5개월간(5~9월), 분야별 안전관리자문단은 철근탐사기, 강도측정기 등 점검장비를 활용해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정성 등을 평가한다. 종합결론을 통해 교체·보수·보강 대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시된 대책은 시설물관리주체인 시,군으로 통보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물은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올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안전관리자문단의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우리 지역에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 과학기술인대상 후보자 접수

### 전북 과학기술 분야 발전 기여한 개인 수여... 27일까지 접수

전북도가 지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업적이 있는 전라북도 과학기술인 대상 후보자를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전북도 과학기술인 대상은 지역 과학기술인을 우대하는 풍토 조성으로 과학기술 혁신 활동을 촉진하며,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후보자 추천 접수는 5월 27일까지며,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과학기술인대상 수상자는 8월경에 예정된 과학축전 개막식에서 시상하게 된다.

후보자 지역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 등으로 도내 기업 성장과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다.

시상 규모는 3명 이내며, 추천은 14개 시장·군수,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그 밖의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기관에서 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을 수여하며, 전북도 인재개발원의 교육 강사 우선 위촉 등 조례가 정한 예우

를 받는다.

후보자 추천은 추천서 및 공적조서, 증명자료 등을 작성해 전북도 혁신성장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할 수 있다.

관련 서식은 전북도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첫 전북도 과학기술인대상 수상자는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으로 등록강선, 음악, 수소연료탱크 등 40개가 넘는 '국내 최초'의 소재·부품을 개발했다.

또한, 일렉트로닉스산업진흥원, 임실 일진제강 투자, 탄소복합재 수소저장용기 일진하이얼투스 완주공장 증설 등 지역산업을 견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사업국장은 "과학기술인 대상이 전북도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과학기술인 등 특성에 따라 지상약제 살포, 나무주사 등 적절한 방제를 실시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림병해충의 경우, 해충의 생활사에 따른 방제 및 작업 시기가 중요하다"며 "적기에 맞춤형 방제를 실시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호상 기자

## 도, 기온상승에 따른 외래해충 방제 추진

전북도가 산림과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외래병해충의 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적기 방제를 실시한다.

최근 들어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등 농림지 동시 발생 해충의 대량 발생 우려가 높아, 5월부터 9월까지 성충기 예찰과 지상 방제 약3,550ha를 집중 실시한다.

특히 농작물 재배지 주변 산림 등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등과 사전협의 를 통해 공동 예찰방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유호상 기자

또한, 예찰방제원 52명을 고용해 알집을 제거하고 있으며, 조기 예찰로 발생 현황을 파악 후 병해충 습성과 생활사 등 특성에 따라 지상약제 살포, 나무주사 등 적절한 방제를 실시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림병해충의 경우, 해충의 생활사에 따른 방제 및 작업 시기가 중요하다"며 "적기에 맞춤형 방제를 실시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호상 기자

## 신원식 정무부지사, 해양치유 거점 단지 예정지 현장행정

### 고창 해양치유 활성화 사업 점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사업추진에 만전' 당부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3일 고창군 심원면 일원에서 해양치유 거점 단지 조성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해양치유 거점 단지 조성사업은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준비 과정을 통해 해양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현재, 기대?평균 수명 증가 및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웰니스 관광과 같은 건강 관련 산업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연 친화적 레저활동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도는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방향 사업화 추진전략 등의 내용으로 전라북도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계획 수립 용역('21.7.~'22.1.)을 진행했고,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22.~)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창군 심원면 일원에 해양치유 체험시설 및 해양치유(의숙) 등의 기반 시설을 구축해 해양치유 거점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계명산 전망대에서 고창군 이주철 부군수 등 직원들과 함께, 해양치유 거점 단지 조성 예정 부지를 둘러보며,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고속

도로 및 노을대교 등의 개통 예정으로 접근성이 좋아져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해양치유 활성화를 통해 선진국형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선진국형 해양관광 기반시설 구축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의 연안지역 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된다"며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거점 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서울장학숙-명지재단, 업무협약

전북도서울장학숙(관장 정종복)은 지난 3일 고창 명지병원 회의실에서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이사장 이왕준)과 서울장학숙 임사생들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제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도의 미래 인재인 임사생들의 건강을 위해 각종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북 인재육성 사업에 상호 협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기관은 ▲전북 인재육성 사업과 후학 육성,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행사 및 사회공헌 사업, ▲전북도서울장학숙 임직원 및 학생들에게 종합검진 합의를 포함한 진료 편의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도민과 원우를 위한 특강 및 축제

감사와 사랑의 달 5월에 유명강사를 초청해 도민을 위한 스피치 무료특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지인들과 같이 참석하여도 무방합니다.



강사 박인욱  
명지대학교 교수 역임  
국내유머 여성강사1호



대회본부장 김경욱  
전담교수  
스피치올림픽 전북회장



대회장 손영엽  
군산대 스피치과정 원우회장  
서광수술포럼(주) 대표이사

- 일 시 : 2022년 5월 14일 (토) 오후 2시
- 장 소 : 전주월드컵경기장 광장(남문 앞)
- 주 최 :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본부
- 주 관 : 각 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

**각 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본부**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전화 : 285-6676, 231-6669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